



## 관내 동향

### □ 한국판 NASA ‘항공우주청’ 사천에 설립 확정

- 윤석열 정부는 5월 3일 ‘11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사천에 정부 산하 항공우주청을 설립기로 확정했다. 한국판 NASA(나사·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항공우주청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한 항공우주정책을 총괄할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할 예정이다.
- 국정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목표로 연구개발, 국가안보, 산업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로 개편하고 다부처 정책 조정,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조직·기능 설계를 위해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천 유세장에서 항공우주청 사천 설립을 약속 한 바 있으며, 사천시민의 염원대로 약속이 실현된 것이다.

### □ KAEMS, 민항기 중정비 누적 100대 달성

- 한국항공서비스(주)(이하 KAEMS)가 4월 22일 민항기 중정비 누적 100대를 달성했다. 2018년 7월 KAI의 자회사로 설립된 KAEMS는 3년 9개월 만에 상기 실적을 달성했다.
- KAEMS는 민수 중정비의 핵심인 반납정비 사업도 참여한다. 반납정비는 운항사가 대여 항공기를 반납하기 전 항공기 상태를 검사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중정비 사업 중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사업이다. 또한 B737, A320 계열 항공기의 화물기 개조사업 등으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 KAEMS는 2018년 설립된 이후, 2019년 매출 61억 원, 2020년 145억 원, 2021년 185억 원을 달성하여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167% 성장한 276억 원의 매출이 전망된다.

## □ KAI, 국제방산전시회 참가해 동유럽 시장 개척 준비

-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IDEB 2022)에 참가해 국산 고등훈련기·경공격기 FA-50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 슬로바키아 국방당국은 국산 고등훈련기로 개발되어 경공격기까지 진화한 FA-50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슬로바키아 방산협회와도 산업협력 준비 현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폴란드,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등 노후 전투기 대체가 필요한 잠재 수출국들과 면담도 진행됐다.
- 최근 신냉전이 가속화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국방비 증액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 KAI는 FA-50의 동유럽 신시장 개척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 □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에어버스 데이' 성공사례 발표

-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4월 28일 '에어버스 데이(Airbus Day)'에서 글로벌 대형 항공기 제작사이자 방위 산업체인 에어버스사와 항공·방산 분야 협력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 '에어버스 데이'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하고, 에어버스사 및 코트라(KOTRA),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KAIA) 주관한 행사로, 에어버스사와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기회 제공을 통해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에어버스사의 A330, A320 기종의 여객기-화물기 개조사업이 성공사례로 평가받아 본 행사에 초청됐다.
- 지난 2020년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2,600억 원 규모의 여객기·화물기 개조사업을 최초 수주한 이후, 작년에는 1,200억 원 규모의 추가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해당사업을 바탕으로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2021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8% 성장한 546억 원을 달성하며, 코로나19 이전을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 도내 동향

### □ **경남도, 항공우주 분야 2개 신규사업으로 국비 80억 원 확보**

- 경남도는 산업부 주관 공모사업 ‘2023년 지역거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항공우주 분야 2개 과제가 선정돼 국비 80억 원을 확보했다.
- 2개 과제는 ‘항공우주부품 제조공정 지능화를 위한 Edge-MCT 시스템 구축사업’과 ‘무인이동체를 활용한 남해안권 통합 모니터링·실증 기반구축사업’으로 ‘Edge-MCT 구축사업’은 항공우주 제조 분야 중소기업의 장비 노후화와 인력난 해소, ‘무인이동체 통합 모니터링·실증 기반구축사업’은 부산·전남과 함께 관련 기술 공동개발 및 실증을 추진하게 된다.
- 이는 경남도가 신청한 항공우주 분야 2개 과제가 모두 선정된 것으로 향후 경남의 항공우주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 **경남도립남해대학, 헬리콥터 정비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 경남도립남해대학 정비학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헬리콥터 정비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 현재까지 경남에서 국토교통부 헬리콥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대학은 남해대학이 유일하다.
- 이번 헬리콥터 정비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으로 남해대학 항공정비학부는 KAI 및 KAEMS의 군용헬기 수리온 및 소형전투헬리콥터 제작 및 항공기정비(MRO)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됐다.

### □ **경상국립대, 과기정통부 ‘미래우주교육센터’ 사업 선정**

- 경상국립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미래우주교육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경상국립대를 포함하여 부산대, 세종대, 인하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 5개 대학이 최종 선정되었다.

- 경상국립대는 경남도, 사천시, 진주시, 한화시스템(주) 등의 지원을 받아 ‘고신뢰성 저비용·저궤도 위성군 소요 위성시스템 핵심기술 연구’ 과제를 공모사업과제로 신청·제출한 바 있다.
- 경상국립대 미래우주교육센터는 향후 5년간 국고 50억 원, 지자체 지원금 12억 5000만원, 기업지원금 5억원 등 모두 6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현장 실무교육, 취업 지원 연계, 국제협력 프로그램 등 미래 우주 기술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30명의 석·박사급 핵심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우주 전문인력 양성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항공우주청’ 사천 설립과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동향

### □ KOTRA · KAIA, ‘에어버스 데이’ 개최

- KOTRA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KAIA)는 글로벌 항공우주 분야 선두주자인 에어버스사를 초청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국내 최초로 ‘에어버스 데이(Airbus Day)’ 행사를 개최했다.
- 이번 행사에는 에어버스 본사의 민항기 외에 헬리콥터, 방산, 우주 분야 등의 임직원이 내한하였으며, 항공·우주 분야의 국내기업 40여 개 사가 참석하여 상담을 진행했다.
- 현재 에어버스와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 국내기업들의 성공 사례와 에어버스 구매정책을 발표하는 세미나가 열렸고, 기존 항공·우주 분야 수출 외에 ICT, 로봇, 신재생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협력수요 발굴 및 R&D, 투자유치,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가능성 등이 논의 됐다.

### □ 국내 통신3사, 미래 먹거리 ‘하늘길’ 선점 경쟁

- 도심항공교통(UAM)시장이 국내 통신사를 중심으로 한 3파전으로 압축됐다. UAM은 도심 상공 수백미터 상공에 자율주행 드론을 띄워 사람과 물자를 수송하는 기술인 만큼 5세대 이동통신(5G)망이 필수다.

- 통신3사 중 UAM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KT다. 지난해 11월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인천공항공사, 대한항공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 SKT는 지난 1월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연구원과 컨소시엄을 결성하며 UAM 사업화를 위해 협업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글로벌 기체 제조사 조비 에비에이션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 LG유플러스는 카카오모빌리티, GS칼텍스, 제주항공, 파블로항공,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UAM에 본격 진출했다.
- 정부는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있으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2020년 70억 달러(약 9조원)였던 세계 UAM 시장 규모가 2040년에는 1조 4740억 달러(약 1870조 원)에 이를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미래 ‘하늘길’을 선점하려는 통신·모빌리티·항공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 해외 동향

### □ 중국, 화물우주선 발사 성공…우주정거장 핵심모듈과 도킹

- 중국이 독자 우주정거장 ‘톈궁’ 건설을 위해 세 번째 발사한 화물우주선 ‘톈저우 4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우주정거장 핵심 모듈인 ‘톈허’와 성공적으로 도킹했다.
- 이 우주선에는 다음달 발사할 유인우주선 선저우 14호에 탑승할 우주비행사들을 위한 각종 보급물품 6톤 가량이 실렸다.
- 중국은 지난해 4월 우주정거장 본체인 ‘톈허’를 쏘아 올린데 이어 화물우주선과 유인우주선 각 두 차례씩 발사하였고, 올해 ‘톈저우 4호’를 포함한 총 6차례의 우주선 발사를 통해 연말까지 우주정거장 건설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 독일 볼로콥터, 한국 진출 선언...2년 후 항공택시 운영

- 도심항공교통(UAM)의 글로벌 업체인 독일의 볼로콥터가 한국 진출을 선포했다. 볼로콥터는 2011년 설립된 에어택시 전문기업으로, 단거리 에어택시 ‘볼로시티’, 볼로시티를 탑승할 수 있는 도심 이착륙지인 ‘볼로포트’를 개발 중이다. 이외에도 200kg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볼로드론’, 최대 100km까지 비행할 수 있는 장거리 에어택시 ‘볼로커넥터’, 이를 제어·운용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볼로IQ’등을 개발하고 있다.
- 크리스티안 바우어 볼로콥터 최고사업책임자는 “볼로콥터는 2024년까지 서울에서 100% 전기로 구동되는 항공택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올해 에어택시인 볼로시티 출시를 준비 중이며, 내년에는 국내 최초 볼로포트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볼로콥터에 따르면 현재 2인용 에어택시는 한번 충전으로 최장 35km를 갈 수 있으며, 최고속도는 시속 110km이다. 이는 대략 서울 강남역에서 경기도 화성 동탄역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는 기술이다.

작성일	2022. 5. 13.(금)	보고일	2022. 5. 16.(월)
부서명	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	담당자	최고봉 (☎055-831-3471)